

기획논문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현황과 과제

유재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Corresponding Author : cymbi@korea.kr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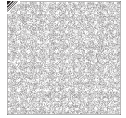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문화유산, 지속가능, 공적개발원조(ODA), 복원,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접수일자 2016. 07. 18



I. 서론

2015년 UN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합의되고,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과제가 명시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면서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빈곤종식, 교육, 양성평등, 불평등 완화,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회경제 분야로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¹ 이를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과 연관하여 이미 다양한 주제로 토의와 제안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

문화유산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굳이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문화유산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내용과 함께 가시적인 유형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SDGs에서 제시한 개발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보존, 자연유산 보호와 같은 부분은 문화유산과 관련성이 깊다. 특히 17개 목표 중 하나인 '목표에 대한 단결력-이행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확대, 기술제공, 역량강화, 다자간 파트너십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중 문화유산 ODA는 경제개발에 따른 문화유산의 파괴와 문화 정체성의 혼란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굴, 복원, 시설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국외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문화유산 분야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는 문화유산 ODA의 국제적 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기존에 경제 분야가 주 대상이었던데 비해 문화유산 분야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그러나 사업 규모나 내용은 아직 초기 단계라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나 해석은 다루지 않겠다. 현재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현황과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유산 ODA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이 분야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주요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확인해보았다. 한국의 ODA 사업현황과 내용을 통해 문제점과 보완이나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문화유산 ODA는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가브랜드 가치향상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도 기여한다. 본고가 향후 문화유산 ODA 추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II. 아시아 문화유산 ODA 현황

1. 문화유산 ODA 개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로 표기)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정립한 개념으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 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워크숍 자료집, p.15.

2 <http://www.iccrom.org/seminar-cultural-heritage-and-development-initiatives>,
<http://www.iccrom.org/classifieds/fornello-sustainable-preservation-project-2> 참조.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³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서구 선진국 주도로 전쟁 피해국의 재건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원조는 OECD-DAC(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경제개발이 주요 목적이었다. 경제성장과 발전, 빈곤퇴치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적 원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⁴ 특히 1970년대 초반 피어슨위원회에서 제기한 국민소득 대비 0.7%의 ODA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은 2005년 제31차 Gleneagles G-7 정상회담에서 18개 고도취빈국의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국민총소득 대비 ODA의 비중도 올릴 것을 의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2008년 이래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서구 유럽의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정치적으로 신흥국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선진국 주도로 움직이던 국제개발협력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계속된 경제침체로 서구 유럽의 국제적 위상 약화와 함께 ODA 예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과 스위스는 ODA 기여액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⁶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유네스코와 ICCROM에 많은 기금을 내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경제개발 위주의 ODA에서 문화유산을 논하는 것은 상호 상충성을 가진다고 인식되기 쉽다. 초기에 개도국에서

전통문화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나 방해 요소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경제발전 모델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선언을 계기로 사회조직 및 가치와 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재정립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다. 특히 1980년 말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경제 발전과의 균형을 위해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된다.⁷

문화유산 OD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담론과 의견이 있어왔다. 문화유산 복원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는 경제적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적 효과를 동반하여 효과가 높다.⁸ 문화유산 ODA 사업은 대부분 문화사업의 범주에 넣어서 분류하고 있다. OECD-DAC 원조목적코드에서 문화사업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의 16061번 문화여가 부문에 속해있다. 소분류 항목은 문화를 총망라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대분류상의 분야로 정의하는 공여국은 없다. 자국의 편이에 따라 문화관련 지원 사업을 분류하는데 대부분 도시개발 영역에 두고 있다.⁹

문화유산 ODA 사업 형태는 대표적으로 유형문화재의 보존복원, 전통문화 가치사슬 구축, 즉 무형문화재 보존이나 원주민 등 소수자 보호 등을 들고 있다.¹⁰ 유형문화재

3 KOICA 용어 사전. <http://www.koica.go.kr/devaid/devaid/define/index.html>.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www.odakoica.go.kr> 참조.

4 한경구, 2014,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개발원조가 나아가야 할 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11.

5 황원규, 2014, 「개도국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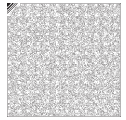
6 황원규, 2014, 위의 책, p.95.

7 광재성, 2014,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담론과 문화유산 ODA 중요성」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60.

8 광재성, 2014, 위의 책, p.62.

9 광재성, 2014, 위의 책, p.63.

10 광재성, 2014, 위의 책, p.62.



보존복원은 그 효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현장발굴이나 복원, 박물관 소장유물 보존관리, 실제적인 보존시설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유산 ODA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도출되는 분야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이나 기록화 등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한국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국가가 아시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ODA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 앙코르유적으로 문화유산 ODA의 국제적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ODA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국의 문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여국 중심의 사업 추진이었다. 올바른 문화유산 ODA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개발원조가 결국은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추구를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2. 동남아시아에서의 ODA

아시아 중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의 주요대상인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이 지역은 아시아 남동부 지역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 제도로 구성된 11개국이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구성하였다. 각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선사부터 인류가 거주한 유적이 있고 농경이 발달하기 좋은 기후로 일찍이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불교문화가 발달하였고 15세기 이후 이슬람이 전파되어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식민지화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많다. 문화유산은 고대도시유적, 불교사원, 고고유적 등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건수는 8개국 23개소에 달한다.¹¹

동남아시아 문화유산은 이전부터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 복원사업에 참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은 세계 각국의 ODA 문화유산 사업의 본보기라 불릴 정도로 현재까지도 활발한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이 유적 복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ODA는 주로 유적복원과 보존처리, 지원 등으로 기관 내 보존처리실 설치나 기기 지원, 소장유물 보존처리, 유적 현장에서의 발굴과 복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 ODA 사업 프로그램은 많다. 단기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원 형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 사립기관의 펀드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¹² 나라마다 예산 양상이 다르고 수행기관도 다양하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수년간 지속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한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주제로 단기간으로 운영되는 지원도 있다.¹³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문화유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한정적이다. 결국 ODA사업은 재정적 문제로 지원받는 것인데 이 경우 지원국에 따라 복원 방법이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앙코르 유적 복원사업은 다국적 복원현장이다. 당연히 나라마다 다른 재료와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수십 년 전부

11 http://www.unesco.or.kr/heritage/wh/list_all.asp.

12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하는 국립박물관의 경우 미국 Getty Institute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보존처리실을 설치하였다.

13 미얀마의 경우 연간 수개국에서 불특정 주제로 실시하는 평균 1주간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이 많다. KyawOo LWIN, 2015,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일본 문화청 외, ASEAN+3Cultural Heritage Forum 2015 발표자료.

터 진행되어온 현장에서 초기에는 그저 복원과정을 지켜보던 현지인들이 이제는 실력을 갖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¹⁴ 이와 함께 ODA 지원국에서도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자성, 특성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유산 ODA 사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의 사업추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주요국의 문화유산 ODA 사업

동남아시아에서의 대표적인 공여국으로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도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르고 공여국과는 여러 상황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공여국의 지원형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인도는 문화부 산하기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처럼 프로젝트팀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기관 외 전문단체나 대학에서 자국의 예산을 받아 팀으로 참가하고 있다. 각국의 문화유산 OD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일본, 중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의 사업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일본

일본은 일찍부터 문화유산 ODA 사업을 시작하여 이 분야에서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원조를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원조지역 확장과 사업영역 확대에 주력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원조 규모에서 최고 수준의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였

다.¹⁵ 현재 일본은 동남아시아 외 인도, 부탄, 네팔, 중동지역 등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ODA와 공동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네팔 지진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석굴 파괴 같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적현장에 발생 즉시 조사단을 파견하는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협력 정책 개발과 입안은 외무성에서 주관하고 있다. 자국의 모든 국제협력 사업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제이다. 국가 홍보와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으로 문화유산 ODA도 이런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외무성은 유네스코 사업을 주관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복원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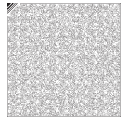
문화유산 ODA 사업 수행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JICA는 2008년부터 일본의 모든 ODA를 담당하는 중심기구로 비교적 규모가 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 외에도 기술, 교육, 시설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독립행정법인으로 일본어 교육, 연구, 문화 예술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JICA에 비해 문화 분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많다. 문화와 관련된 기금은 매년 약 50~60개 사업에 22억~25억 엔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 사업은 대부분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문화분야 ODA는 크게 '문화분야 무상원조(Cultural Grant Assistance)'와 '풀뿌리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분야 무상원조(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로 구분된다. 내용은 거의 대

14 이 문제는 이미 대두된 문제로 문화유산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가 진행 되었다. Ly VANNA, 2015, 「How to Maintain National Identity and to Strengthen Autonom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Experience from Two Decad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gkor」, 일본 문화청 외, 「ASEAN+3 Cultural Heritage Forum 2015」 발표자료.

1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동남아시아 문화유산 협력 활성화 방안 조사 연구」, p.86.

16 일본 외무성은 유네스코 업무 담당으로 일본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여하고 있다. 반면 ICCROM과 같은 국제기구 관련 업무는 문화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소이하나 주체와 규모가 다르다. 문화분야 무상원조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고 풀뿌리 무상원조는 지방자치단체나 NGO가 중심이 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외무성은 문화분야 무상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어 연구와 교육, 일본문화 소개, 일본 관련 박물관과 갤러리 시설 지원, 일본연구, 문화유산 시설지원 및 보존복원 장비개선 프로젝트 등 주로 일본 문화전파와 우수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⁷

2006년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이라는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 조직은 일본 내 문화유산 국제협력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구성되었다. 현재 일본의 다양한 인력풀이 아시아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경문화재단연구소와 같은 정부기관 외에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국 내에서도 연구자 간 정보공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중복성이나 개선 등이 문제가 되어 왔고 한다.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갖춘 조직체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협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참여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본래의 업무를 하면서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공유의 자

리를 갖고 있다. 사무실은 독립행정법인 동경문화재단연구소 국제협력센터에 두고 있다.¹⁸

(1) 문화유산 국제협력

동남아시아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제협력¹⁹은 수행기관인 JICA와 국제교류기금에 따라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다. JICA는 기술협력, 관광, 환경정비, 지역개발, 건설 등과 같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복원도 포함되기는 하나 주로 경제와 지역민과의 협력을 통한 생계수단 향상 등에 주력한다. JICA가 실시한 주요 국제협력 사업은 <표 1>과 같다. 반면 국제교류기금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대상국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장복원, 기술과 장비지원 협력, 인적교류, 워크숍 개최와 같이 실제적인 내용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표 2). 사업은 프로젝트별로 연구자가 팀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장 참여자는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상기 국가 외에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에서 문화유산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부관광개발과 관련한 건조물 보존복원, 환경교육 등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복원기술 지도, 호이안 등 중부지역 관광개발계획을 위한

표 1. JICA의 동남아시아 주요 문화유산 국제협력 사업²⁰

대상국	사업유형	기간	내용
미얀마	기술협력	2014년 11월~ 2017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최대 관광지인 바간지역 대상 바간의 관광개발을 위한 유적보호로 유적보존과 관광개발의 균형 도모
캄보디아	무상자금협력 (95천만 엔)	2013년 12월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앙코르와트 서쪽 참배로 복원장비 지원 앙코르와트 유적 보존복원 관할기구인 압살라청에 서쪽 참배로 복원에 필요한 장비 지원
태국	유상자금협력 (약 36억 엔)	1998년 9월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 사업으로 방콕 외 전역에 걸친 관광 기초인프라 정비, 환경보존, 인재육성을 위한 자연연구센터 건립 지원 유적보존과 관광개발 연계를 통한 지속적 발전

17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15. 위의 책, pp.86~88.

18 사오토메 마사히로, 2016.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 All Japan 협력체제의 구축-』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유네스코 워크숍, pp.57~63.

19 ODA는 광의의 개념인 국제협력의 한 형태이다. 실제로 정확히 ODA라고 볼 수 없는 협력사업도 있어 필요 시 '국제협력'을 병용하여 표기한다.

20 JICA의 사업내용은 <http://www.jica.go.jp> 참조.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15. 위의 책, pp.90~96.

표 2. 국제교류기금 문화유산 국제협력 주요사례²¹

대상국	사업형식	연도	내용
캄보디아	파견	2007~2008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 일본신탁기금 프로젝트 - 앙코르 톰 바이온 유적 보존
		2007	아사 고문서관 소장 판넬 귀중 문헌 「니봉인부권물형패엽 사본」 수복, 보존 디지털화 프로젝트
라오스	파견	2007	일본-라오스 공동주체 프로젝트 시어터 작품 창작과 라오스 실험 공연
베트남	파견	2007~2008	신문화재보호법 적용 제1호 Tong Lung 마을 농집락 보존 수복기술 향상 계획
		2008	Tong Lung 유적 보존 수복
	조성사업	2009	호이안 거리 보존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파견	2007	발리 전통 의례무용 '차론이랑그-란다의 춤' 보존 사업
		2008	중부 자바 지진 발생지의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가믈란(gamelan 26) 워크숍을 통한 문화부흥 계획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라오스 참파삭 왓푸 고대 문화유산 복원과 유적보존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이 지역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은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주관기관에 따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JICA의 사업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을 환경, 경제와 연관시켜 양자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한 점이다. 이는 여기서 논하는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DA의 성과나 효과를 논할 때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다. 문화를 내세우면서 환경과 경제개발을 통해 결국 일본문화의 홍보와 국가위상 강화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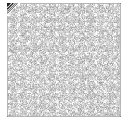
2) 중국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에 힘입어 문화유산 국제협력의 주요국가로 급부상하였다. 자국 내에서도 문화유산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동향은 ICCROM이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해외원조는 개방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 문화유산 국제협력은 경제발전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의 문화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 문화전략을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21세기 실크로드 구축사업으로 2015년 발표되었다.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세계 경영 전략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3개 노선), 21세기 해상실크로드(해상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을 발표하였다. 일대는 중앙아시아와 동서남아시아, 유럽, 지중해, 인도양 등을 아우르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이고, 일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볼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경제발전 도모, 지역 간 네트워크 및 상호교류 확대, 아시아 발전과 안보 기여 등의 장기비전을 제시하였으나, 그 바탕은 중국중심의 세계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치적 논리와 직결된다.

특히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내세우면서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유산 국제협력은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미비하고 정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5대 중점 추진 원칙과 전

2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위의 책, p.97.



략에서 살펴보면 정책연계, 인프라 연결, 무역확대, 자금조달, 민간 교류로 주로 경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민간교류에서 관광분야 협력과 산업분야 공동연구, 과학기술 협력, 교육의료, 빈곤구제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도 문화유산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경제개발 참여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항 경제특구 개발 참여나 미얀마, 방글라데시 주요 항구 개발 참여가 그 예이다.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민간교류 분야에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세계유산 공동보호협약 등을 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파악된 사례는 없다. 다만 이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²

Ⅲ. 한국의 문화유산 ODA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외교정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²³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한국은 원조공여국이 되었고, 이후 ODA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의 방향성, 방법, 내용에 대해 다른 국가와 차별성을 가지는 ‘한국적 ODA’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초기에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여 시작된 사업에서 이제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가 무엇인지, 한국에 맞는 적절한 원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문화유산 분야 ODA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문

화부분의 사업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문화유산 사업은 2014년 라오스 문화유산 복원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세계유산등재 지원 워크숍이나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있으나 현장의 유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복원작업은 라오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 문화 분야 ODA 사업

한국의 ODA 사업 규모는 2012년 15억 5100만 달러로 OECD-DAC 가입 25개국 중 16위에 올라있다. 전체 ODA 중 문화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0.56%로 25개국 중 6위, 전체 평균 0.39%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27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은 총 11건에 약 115억 원 규모이다(표 3).²⁴

표 3.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2015년)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기간	예산(억원)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기타기술협력	2009~계속	2.89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지원	행정비용	2009~계속	1.15
WIPO 신탁기금 지원	행정비용	2010~계속	0.16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기타기술협력	2011~계속	7.67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정책연수 사업	초청연수	2014~계속	15
문화동반자사업	초청연수	2005~계속	14.55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프로젝트	2007~계속	9
해외 문화예술봉사단	파견	2005~계속	12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초청연수	2008~계속	56.52
문화예술 ODA	기타기술협력	2013~계속	1.05
아시아 예술인력 양성	초청연수	2015~계속	6

2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위의 책, pp.98~104.

23 한경구, 2014. 위의 책, p.12.

2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위의 책, p.110.

표 4. KOICA의 문화 분야 주요 ODA 프로젝트²⁵

대상국	사업명	사업 내용
캄보디아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사업	시엠립 지역 도로가 유적지를 관통하여 훼손된 상태에서 대체할 우회도로 건설 및 연장(2005~2012년)
이집트	이집트 문화재청 유물전산화 사업	이집트 문화재 등록, 보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센터 구축(2007~2009년)
콜롬비아	콜롬비아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	콜롬비아 문화역사자료에 대한 DB 기반 확보, 보존시스템 현대화, 전산화(2010~2011년)
페루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 사업	페루 꼬라오 마을에 도예학교 설립, 도자기 제작 및 판매(2010~2011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관광 지원	호레즘 주 관광청에 봉사단원 파견, 히바시 '고대 호레즘 문화축제'행사 지원, 사마르칸트에 한국어 봉사단 파견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카자흐스탄 관광정책개발로 관광 활성화 및 경제발전 도모(2007~2008년)
콩고	콩고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콩고국립박물관 건립(2014~2017년), 2019년 개관 예정
몽골	몽골 게르촌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	NGO 지구촌공생회 협력으로 게르 빈민지역 청소년센터 건립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연수과정		매년 한국 관련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3~4개월간 한국어 교육
한의학 제도와 전통의학 발전		한의학 홍보 및 자료, 정보교환 등
국제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		한국의 선진화된 기록관리 체계 및 운영 노하우 전수(2012년)
관광개발 정책 및 마케팅 전략과정		1995~2005년까지 총 28회 515명 초청 아시아국가 관광개발 현황, 추진방향 등에 대한 강의, 우수 개발지역 방문 등

KOICA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 한국어 교육, 박물관 시설, 관광, 지역개발, 전통 문화 등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해왔다. 앙코르와트 유적이 소재하는 캄보디아 시엠립 도로 포장사업은 유적과 연계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조금씩 사업대상이 확대되는 시점에 있다.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레이피투 사원 보존관리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프레이피투 사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기초조사부터 복원 및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2017년까지 400만 불이 투입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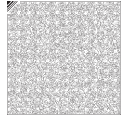
2. 문화유산 ODA 사업

1) 문화재청

문화유산 분야의 ODA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사업은 대부분 양자 무상기술협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시작되어 사업규모는 크지 않다. 2013년 약 12억 원, 2014년 약 16억 원, 2015년 약 25억 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²⁶ 동남아시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부터 세계유산등재지원, 무형유산보호 정보기반 구축지원과 같은 사업 외에 유네스코와 ICCROM의 의무분담금과 신탁기금 등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지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유네스코 및 국제문화

25 김지윤, 2015, 「한국 ODA의 전략과 방향-KOICA 문화 ODA 추진 현황과 방향」,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집, pp.66~6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위의 책, p.111.

2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위의 책, p.113.



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의무분담금과 신탁기금, 세계자연보전연맹(UCN) 의무분담금, 아태지역 세계유산보존관리 관련 신탁기금 등이다. ODA 사업은 크게 국제기구의 의무분담금과 신탁기금, 세계유산 등재 등 지원, 문화유산 복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문화유산 복원사업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복원은 문화재청 지원으로 한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라오스와 문화유산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부터 라오스 참파삭의 홍낭시다 유적의 발굴조사, 기초조사,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²⁷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프레이피투 유적 보존사업은 2011년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부총리실과의 기본 합의 후 추진되었다. 2012년 미얀마 문화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바간지역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으로 보존장비지원, 유적 보존환경 조사 및 구조안전관리 등을 바간 국립고고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문화재청이 부처 간 제안사업으로 KOICA에서 ODA 기금을 지원받아 한국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형태이다.²⁸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처리 및 환경장비, 현장 기기 등을 지원하여 스리랑카,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부탄 등에 제공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세계유산 등재, 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참가자들에게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교육, 등재 신청서 수정보완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상국의 세계유산 등재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업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ACPCS)' 프로그램이다.²⁹ 연구소 자체 고유사업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하는 ODA와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연구소의 전문성을 살린 국제연수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연구소 보존과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제공,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취지로 2005년에 시작되었다. 아시아권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3개월의 단기 과정이다. 2005년 첫해에 스리랑카에서 2명이 수료하였고 이후 점차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총 10명, 연 2회로 정착되었다. 분야도 고고학, 건축문화유산, 미술문화유산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에 사업내용과 양식을 주제국 공관과 온라인으로 발표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매년 정해진 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데, 대상자는 연수 분야별 인원수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전에 해당 부서에 연수인원과 분야에 대해 협의한 후 분야별 인원수가 결정된다. 이 사업은 전문연수과정으로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 2주간의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나머지 개인별 전문연구 과정으로 구분된다. 초청에 따른 모든 예산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 3개월씩 2회 실시한다.

2013년 ACPCS 예산이 확대되면서 초청연수가 아닌 아시아 대상국 현지에서 보존과학 기술을 교육하는 '현지 기술교육(On-site Technical Training Program, OTTP)'과

27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문화재단, 2015,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국제 심포지엄」 참조.

28 김연수, 2016, 「한국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2016 유네스코 유산 국제개발협력 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 pp.67~77.

29 ACPCS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The 1st ACPCS Workshop」 Proceedings.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10th Anniversary of AC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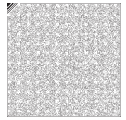
유재은, 2014,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의 현황과 전망」, 『유네스코 문화유산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pp.49~55.

정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대상국의 문화재를 현지 상황에 맞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처리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장비사용 교육과 병행하여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재질의 문화재 보존처리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한다. ACPCS 초청연수는 연수생이 한국에 들어와 연구소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한 연수를 받는다. 대부분 국가는 연구소와 같은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연수생이 자국에 돌아가도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현지기술교육은 현지의 시설과 장비, 여러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으로 직접 보존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put과 out-put을 병행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ODA 사업과 연계한 연수생 선정과 현지기술교육 대상국 선정도 하고 있어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과 연계한 문화유산 국제협력 운영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부탄에서 국립박물관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속, 도자기, 석조, 토기 등 재질별 보존처리 실습과 지원장비 사용 교육을 병행하였다. 특히 미얀마 바간 국립고고학박물관의 교육은 문화재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3년간의 과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박물관에서 자체 보존처리실을 설치하여 소장유물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 1개국에 2~3회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보존처리의 기초이론부터 단계별로 실습을 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OTTP의 가장 큰 강점으로 타 국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시아 저개발국은 대부분 외국의 전문가가 와서 유물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하여 직접 보존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대상국 담당자는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의 보존처리 작업에 참여하는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이 아닌 상황에 따라 방법을 아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현지기술교육 참가자들은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고 실제로 습득한 지식을 소장유물 보존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ACPCS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아시아에서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다. 2015년까지 총 19개국 83명이 참가하였다. 동남아시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분야 인력풀을 형성하고 있다. 초기의 참가자들은 전문지식이나 수준이 미비하거나 연수계획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참가자간에도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았어도 돌아가면 시설이나 기기 부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참가자들의 수준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연구대상 시편을 들고 와서 직접 분석하고 학술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있어 왔다. 이러한 현상이 ACPCS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는 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7년부터 3개월 단기과정과 함께 5개월의 장기과정도 병행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참가자들이 귀국해서 ACPCS 연수대상자로 동료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이들에 의해 공동연구도 제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ACPCS는 참가자간의 정보공유나 인적교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가위상 강화나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나름 문화유산 보존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CPCS 사업은 인적 역량강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 ODA는 무상지원으로 복원과 장비지원, 기초조사 등을 파견된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지인과의 관계 설정이다. 각국의 문화유산은 자국의 역사성과 고유성, 독자성을 가진다. 형태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에는 그 나라만의 정신과 이념이 반영되어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전문가가 그 나라의 문화유산 보존복원에 참여했을 때 대개는 이러한 부분은 간과한 채 자국의 기술만을 적용한 복원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을 들 수 있다. 수십 년간의 다국적 전문가에 의한 복원으로 나라마다 각기 다른 기술과 복원을 적용하여 동일 유적에



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초기에 단순 참가만 하였던 현지인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름의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면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올바른 문화유산 보존인가라는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유산 ODA에서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왔다.³⁰ ACPCS 사업은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초청연수와 현지기술교육을 병행한 운영으로 무엇보다 현지인의 역량강화에 주력하려고 한다. 아울러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장기연수는 보존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아시아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연구소 연구대상의 확대와 연구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IV. 향후 과제 및 결론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사업규모나 내용, 예산 등에서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넓은 범위에서 문화에 넣어서 볼 수 있겠지만 문화유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ODA 사업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 와서야 시작된 상황이라 아직까지 운영방식이나 장기적 전략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지 20여년 정도로 역사가 짧아 규모나 방식에서 우리나라의 사업모델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유산 ODA의 방향성과 국제사회에의 기여 방안 등과 같은 정책토론과 의견제시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³¹ 여기에는 ODA 사업체계부터 사업선정, 추진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문화유산 ODA

의 방향성,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 ODA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ODA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당위성과 타당성, 대상 선정부터 추진방식과 피드백까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고 하위 세부항목을 설정하는 등 보다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ODA의 원칙과 비전, 전략, 윤리 등의 문제도 포함한다. 문화유산 ODA는 문화 영역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큰 범주에서 보면 연관성은 있으나 통상 말하는 문화사업과는 다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KOIC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매년 정기보고서나 정책토론회 개최로 ODA와 국제협력 방향성, 장기사업 구상, 국제적 동향 등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관련된 정책 제시는 소수에 머무른다. 한국어 교육, 시설, 관광 등 부문에 더 집중되면서 문화유산은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ODA 사업을 경제적 우선으로 접근하면서 무상지원에 대한 단기성과 요구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문화유산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당장의 성과보다 문화유산 ODA를 통해 향후 도출되는 종합적인 영향과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펼쳐진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은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장기적 성과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ODA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이념에 공여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현지의 역량강화가 맞물려 있을 때 효과가 높다. 따라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추진이나 나열식 추진보다 집중된 장기간의 지속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문화유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표적인 분야로 이미

30 이 문제는 2015년 12월 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주최로 개최된 'ASEAN+3 Cultural Heritage Forum 2015'에서도 제기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된 문제로 이 자리에서 결국 자국의 문화유산 복원은 자국민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그 문화의 고유성, 다양성, 독자성이 반영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의 역량강화라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매년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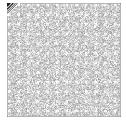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만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문화유산 ODA와 유사한 유형이 아닌 분명 우리만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복원사업은 그만큼 특화되거나 주목받기 어려운 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이다. '지속가능성'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문화유산 특성상 이의 보존은 결국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왔다. 즉 문화유산의 원형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복원 자체가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같은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현지인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수원국의 문화유산은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타당한 답은 자국민에 의한 자국 문화유산의 복원이다. 외국전문가의 입장으로 실시하는 복원이 아닌 그 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독자성을 반영한 복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ACPCS 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지기술교육 대상국 선정 기준이나 운영방식 등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의 복원사업은 기초조사, 발굴, 모니터링, 복원 등 다른 외국의 예와 비슷하다. 다만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재단에서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협력하여 ACPCS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학교 학위과정과 연계한 운영은 인력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이다. 현재 문화유산 ODA는 문화체육관광부, KOICA,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초기 단계라 사업규모나 내용은 미비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유산 분야를 별개로 구분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민간기관이나 전문가의

참여도 적지만 향후 사업확대를 고려한다면 미리 정보공유나 협업, 공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유산 ODA 컨트롤 타워 설정 및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 중복사업 방지, 업무분장 등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산 ODA는 인류유산의 보존이라는 의미와 함께 분명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아직 중요도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경제효과가 우선시되면서 문화유산은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 ODA 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성, 2014,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담론과 문화유산 ODA 중요성」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동남아시아 문화유산 협력 활성화 방안 조사 연구」보고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10th Anniversary of ACPCS』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The 1st ACPCS Workshop』
- 김연수, 2016, 「한국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2016 유네스코 유산 국제개발협력 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청
- 김지윤, 2015, 「한국 ODA의 전략과 방향-KOICA 문화 ODA 추진 현황과 방향」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집
- 박열한 · 김상현, 2015, 「한국형 문화 ODA 현안과 발전 방향」,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발표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 유재은, 2014,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의 현황과 전망」 『유네스코 문화유산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 정하영, 2014, 「문화유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세계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재관리학』 1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경구, 2014,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개발원조가 나아가야 할 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문화재단, 2015, 「라오스 흥남시다 유적 보존 · 복원 국제 심포지엄」
- 황원규, 2014, 「개도국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사오토메 마사히로, 2016,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 All Japan 협력체제의 구축-」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유네스코 워크숍
- 文化庁 외, 2015, 「東南アジア諸国と共に歩む ～多様な文化遺産の継承と活用～」, アセアン+3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5
- 文化庁, 2015, 「我が国の文化政策」
- Kyaw Oo LWIN, 2015,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일본 문화청 외, ASEAN+3 Cultural Heritage Forum 2015 발표자료
- Ly VANNA, 2015, 「How to Maintain National Identity and to Strengthen Autonom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Experience from Two Decad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gkor」, 일본 문화청 외, ‘ASEAN+3 Cultural Heritage Forum 2015’ 발표자료

Situations and Challenges of ODA for Sustainability of Asian Cultural Heritage

Yu Jae Eun

Restoration Technology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cymbi@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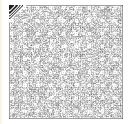
Abstract

Various opinions and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in progress which are connected with cultural heritage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as announced by 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 as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part from SDGs,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tself stands on the basis of sustainability that originality, characteristic, d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ermanently preserved.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actical ODA for cultural heritage, far from theoretical approaches and policies.

This paper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domestic and overseas situation related to ODA of Asian cultural heritage and the mentioned problems, future plans and challenges. First, the background and concepts about ODA were described and then ODA project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by Japan and China as typical ODA countries for Southeast Asia were introduced. ODA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has relatively recently started for restoration work for historic sites of Laos and Cambodia and its scale and performance do not come to much yet. Therefore, to develop ODA of cultural heritage, there are suggestions as in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a long-term master plan of ODA projects for sustainability of cultural heritage. Second, based on the view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selection and focus for ODA partner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voiding short-term projects aiming at a number of countries. Not widespread existing projects by other countries, but the model of Korean ODA for cultural heritage only Korea can conduct should be prepared.

The next thing is connection with sustainability, and ultimately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result in benefit to the natives by giving an impetus to economy as well as fostering tourism of local areas. To accomplish that connection, educational training and building capacity are suggested as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s. Cultural heritage of each country reflects its indigenous originality 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restoration work should be conducted by people in each country as the best way. From this point of view, ACPCS hel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ill take a role of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in Korean way. Lastly,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for ODA in Korea is necessary. JCIC(Japan



Consorti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ltural Heritage), which was set up in Japan for sharing information,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and prevention of overlapped projects will be an example we can take into consideration.

Key Word Cultural heritage, Sustainability, ODA, Restoration, ACPCS

Received 2016. 07. 18